



꿈꾸는 기관사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과 함께 일자리 정책의 길을 찾다

- 청년과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 토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8일(목) 10시,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청년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토론하는 「청년, 일문일답(일을 묻고 일을 답하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한 청년 등 42명이 참여하여 각자의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청년 당사자의 시각으로 설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사회적으로 ‘쉬었음’ 청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으나,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편적인 논의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청년이 겪는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새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장관이 청년들과 직접 만나고 대학 현장을 찾는 등, 총 10여 차례의 간담회·심층면접(FGI)을 통해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확인했다. 구직 청년들은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경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을 호소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거나 일자리를 떠난 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끊겨버린 어려움도 털어 놓았다. 또한 일하는 청년들은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일터, 일하고 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고민을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쉬는 기간이 길어진 청년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 ▲구직 청년에게는 당당히 일할 기회, ▲일하는 청년에게는 상식적인 일터를 보장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문제는 청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해법 또한 청년 당사자 시각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청년 일자리 하나를 위해서는 온 나라가 필요하다. 오늘 들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전 부처와 협력하여 청년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책임자	과 장	구현경 (044-202-7440)
		담당자	사무관	강석원 (044-202-7423)
			사무관	김형우 (044-202-7636)



□ 개요: 「청년, 일문일답(일을 묻고 일을 답하다)」

- (일시) 8.28.(목), 10:00~11:30(90분)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ON라운지
- (내용)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발표 및 자유토론 진행
- 참석자
 - 청년: 공개모집 참가자, 사전간담회·FGI 참여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청년위원,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등 총 42명
 -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고용정책관 등

□ 세부 진행순서(안)

※ 모두 발언까지 공개

시간	내용	비고
10:00~10:05(05')	개회 및 모두 발언	-
10:05~10:20(15')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발표	청년고용정책관
10:20~11:20(60')	자유토론	참석자 전체
	① 청년의 경험 공유 ②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관련 의견	
11:20~11:30(10')	마무리 말씀 및 기념사진 촬영	-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쉬었음’ 청년 문제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들의 현실을 깊이 알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논의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오래된 숙제이지만,
그동안 정부와 사회가
청년을 단지 빨리 취업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청년이 겪는 근본적인 어려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겪는 문제에 관한 해법은
당사자인 여러분의 시각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쉬었음’ 청년은 정말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지만,
자신의 노력은 ‘진짜 취준’에 못 미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기업은 경력직만 원하는데,
경력이 없어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는 청년도 있습니다.

어렵게 일을 시작했더라도,
청년에게 당연한 상식이 통하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터에
실망하고 좌절해 멈추게 되기도 합니다.

쉬는 기간이 길어진 청년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구직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당당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일하는 청년에게는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일터를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해진 답을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기록하여,
실제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담아내겠습니다.

기관사 시절, 정해진 철로를 달리며
다음 역까지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청년의 시기는
얼마나 더 막연한 것인가,
그리고 제 청년의 시기는 어떠했든가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 여러분께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부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나약한 취업준비생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예비 노동자입니다.

감사합니다.